

# 두 음악가 이야기



박 성 희  
(조선일보 문화부기자)

**흰한** 대머리와 소박한 미소가 인상적인 음악가 申相哲씨(63)는 종로의 한 레스토랑 악사다. 매일 밤 이 레스토랑에 들어서면 가냘픈 피아노 반주에 맞춘 애절한 바이올린 소리가 어두컴컴한 정적을 뚫고 귓전에 와 앉는다. 사라사테의 지고이네르바이젠에서부터 최진희의 「사랑의 미로」에 이르까지 다양한 레파토리가 손님들의 각양각색의 기분을 어루만져 준다.

벌써 18년째다. 그가 이 레스토랑에서 바이올린을 켜기 시작한 것은, 한때는 종로에서 손에 꼽는 고급 카페였고, 지금도 나이든 고객들의 머리속에 향수처럼 자리잡고 있는 이 레스토랑이 문을 연 때부터 그는 땅거미가 지면 어김없이 이곳에 와서 바이올린을 켜 왔다. 그때 국민학생이었던 큰 딸은 지금 30대의 여인이 되어 아버지 옆에서 피아노 반주를 하고 있다.

그가 만들어내는 굵고 윤기흐르는 바이올린 가락

의 진가는 「在野 음악인들」 사이에선 꽤 유명하다. 언젠가 그는 미국의 어느 골동품점에서 혈값에 구입했다는 이 바이올린이 제법 쓸만한 소리를 낸다며 「골동품상 주인이 뭘 모르고 고가품을 싸게 판게 아닐까」고 의아해 했을 정도였다. 그러나 화려한 밤무대 의상 뒤에 감춰진 그의 경력을 천천히 훑어보면 바이올린 소리에 윤기가 흐르는 것이 비단 골동품상 주인의 실수때문은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다.

서울 시립교향악단의 전신인 서울관현악단의 창단멤버를 지냈고, 정식 오디션을 거쳐 홍콩교향악단의 수석 바이올리니스트를 역임한 「탄탄한」 실력의 소유자가 바로 그이기 때문이다.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라는 수식어가 늘 따라 다니는 鄭京和가 11살때 그에게서 바이올린을 배웠고, KBS 교향악단 수석을 역임한 金義明교수(한양대)가 또 그의 제자였다.

정경화의 정식 이력서에는 「사사 : 양해업 안병소 인용구 신상철 이반 갈라미안」이라고 적혀있다. 정경화는 몇년전 영국의 권위있는 현악잡지 「더 스트라드」와의 인터뷰에서 申 선생에 관한 기억을 이렇게 말했다. 『바이올린을 시작한지 5년동안 선생님이 일곱번 바뀌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이 신상철 선생님이예요. 그분은 거의 매일 오셨어요. 특히 다른 선생님들과 달랐던 점은 바이올린의 아름다운 음감을 일깨워 주셨다는 것이지요. 이론적으로 튼튼한 훈련을 계속해 주셨기 때문에 줄리어드로 유학간 후 갈라미안 교수 밑에서도 기초 교육만큼은 크게 변경할 필요가 없을 정도였으니까요』

줄곧 미국에서 생활하다 몇년전 귀국한 김의명씨는 종종 이 레스토랑에 찾아와 옛스승의 가락을 청

해든곤 한다. 어쩌면 집시 바이올리니스트에게서나 느낄 수 있는 「즉흥성과 감정이입」에 감복하면서,

申씨의 이력에는 그러나 또 다른 얼굴도 있다. KBS 경음악단의 오랜 멤버로 활약했으며 밤에는 미군부대와 국립관 무대에서 구성지게 바이올린을 켜다. 너나 없이 궁핍했던 그 시절, 그는 밀가루와 맥주를 담례로 받아 생활을 이어갔다. 클래식 학생들은 국립관 연습실로 그를 찾아와 레슨을 받아가곤 했다.

요즘에는 간간이 클래식 소품을 연주하는 것 외에 정통 클래식과 거리가 멀어졌지만 「워낙 밤 생활을 좋아해서」 이 생활에 만족한다고 그는 말한다. 그리고 「아직도 음악이 그리워서 못살겠다」고 한다. 하고 싶은 음악은 너무 많은데 인생이 너무 짧다는 것이다. 그에게 음악이란 삶이고, 숨쉬는 공기이고, 유일한 존재 이유인것 처럼 보인다. 클래식 악단에 실기 오디션을 거쳐 입단했으나 정규 학력이 없어 번번히 따돌림을 받아도, 그것이 그의 음악을 향한 열정을 꺾지는 못했다. 비록 왕년에는 정경화의 스승이었으나 지금은 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아 모두 음악을 전공하는 1남 2녀의 아이들을 다른 선생에게 보내야 하는 아쉬움도 그의 음악사랑을 식게 하지는 못했다. 그곳이 레스토랑이건 콘서트홀이건 그가 음악을 연주하는 곳이 바로 영혼의 안식처인 까닭이다.

또 한사람의 음악가가 있다. 강남에서 피아노바를 경영하고 있는 팜 피아니스트 任學成씨(39)다. 그 역시 고등학교 졸업후 18년간 야간 업소에서 피아노를 두드리다 지금은 어엿한 피아노 바의 주인이 되었다. 이 피아노바에 가면 간혹 KBS 교향악단의 오보에 수석주자가 연주하는 구성진 트럼펫 소리를 들을 수 있다. 단골손님인 KBS 교향악단 단원중 한명이 흥에 겨워 즉석에서 연주하는 소리다.

任씨의 관심은 처음부터 팜 피아노쪽에 기울어져 있었다. 클래식 피아노를 배우면서도 『나에게 맞는 건 이게 아닌데...』라는 생각을 자주 했다고 한다. 즉흥적인 연주기법과 편곡능력이 있어야 하는 팜 피아노의 매력에 일찌기 눈을 뜬 그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방식으로 피아노를 치면서도 자기가 원하는 음악을 만들어 간다는 즐거움에 젖어있곤 했다.

그가 마침내 얼마전 국내에서 최초로 팜 콘서트를

열었다. 실로 18년간 영글어온 꿈의 결실이자 명실공히 팜 피아니스트라는 타이틀로 불리우게 된 그로서는 획기적인 전기가 된 음악회였다. 그는 더이상 피아노바의 주인이 아니라 예술가인 것이다.

적자를 무릅쓰고 강행한 연주회는 과연 성공적이었다. 「팬텀 오브 오페라」를 팜으로 편곡해 오프닝을 장식했고, 그의 자작곡과 영화음악, 가요등을 하나하나 풀어놓았다. 어두컴컴한 카페의 조명아래에서 수백번 컷던 곡들을 이제야 비로서 깔끔하게 장식된 무대위에 펼쳐놓은 것이다. 초롱초롱한 관객의 눈빛을 느끼면서.

그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올해안으로 팜스 오케스트라를 창단하겠다는 다부진 꿈을 갖고 있다. 기억할 수 있는 옛날부터 그는 보스턴 팜스 오케스트라나, 제임스 라스트 악단에 버금가는 한국 최고의 팜스 오케스트라를 만들어 보겠다는 꿈을 가져 왔다고 했다. 마침내 연미복 차림으로 팜 음악을 지휘하는 스스로의 모습이 그동안 키워왔던 꿈의 종착점이라는 것이다.

연주회날, 첫 연주회 답게 그는 꽤 긴장해 있었다. 조심조심 무대위를 걸어 나와 한국 한국 쳐 내려가던 그는 마지막 곡이 끝나고 우뢰와 같은 박수가 터지자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무엇이, 불혹을 앞둔 그의 눈물샘을 자극했을까.

서로 자라온 배경과 악기는 다르지만 어딘가 모르게 이 두 음악가의 삶에는 비슷한 점이 있다. 고급문화와 대중 문화를 엄격히 다루려는 사람들에게 클래식 음악을 자신들의 언어로만 여기는 콧대높은 일부 음악인들에게, 예술가의 진솔한 삶이나, 거기에서 빚어진 예술의 질보다 규격화된 상품에 더 길들여진 많은 음악애호가들에게, 이 두명의 음악가는 하나의 물음을 던진다. 그들이 그토록 오랜기간 몸으로, 혼으로 추구할 수 밖에 없었던 그 무엇이, 과연 요즘 혼란 의미의 음악, 혹은 예술과 동일한 것인지들.

클라식의 언저리에 머무는 듯한 이들의 예술세계가 때론 번듯한 학력과 화려한 경력을 지닌 클래식 연주가의 연주보다 더 시큰한 감동을 주는 것은 그동안 잊고 있었던 예술의 참뜻을 일깨워준 때문은 아닐까.